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5.06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회원국들,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보 방안 추진 중(4.30)

- EU 이사회 키프로스 의장국의 호라이즌 규정 및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, 회원국들은 ‘호라이즌 전략위원회’를 통해 집행위에 연구 자금의 전반적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됨
- 비EU 참여국의 기여금 역시 논의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이들 국가의 재정 기여금이 해당 국가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보장하기를 원함
- 한편 차기 프로그램에서 준회원국들이 워크프로그램 결정 과정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준회원국 과학 외교관들로부터 제기됨

○ ERC, 2027년 재신청 규정 강화 방침 철회(4.30)

- 제안서 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엄격한 규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반발이 커지자, 유럽연구위원회(ERC)는 이를 철회하고 2027년 Starting, Consolidator, Advanced 그랜트는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
- 다만 연구팀 단위로 지원하는 Synergy 그랜트의 경우 일부 제한은 유지, 2027에는 1) 2025년과 2026년의 평가 1단계에서 C등급을 받았거나 2) 2026년 평가 1단계에서 B등급을 받은 신청자는 지원할 수 없게 됨

○ 독일·네덜란드·이탈리아는 AI 인재 유입 증가, 프랑스는 유출(4.30)

-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기술 인력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옴. 2025년 독일의 AI 연구자·엔지니어 수는 전년 대비 65% 증가해 1만 7,000명을 넘어섰고 네덜란드는 87%, 이탈리아는 117%, 스페인은 38%, 스웨덴은 28% 증가. 반면 프랑스는 45% 감소
- 현재는 미국보다 유럽으로 이동하는 기술 인력이 더 많아지며 오랜 기간 이어졌던 ‘브레인 드레인(brain drain)’ 흐름이 변화 중이라는 분석

- (기타) ▲학계 지도자들, ERA 법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행위가 계획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촉구(4.27) ▲유럽경쟁력기금 초안 보고서, 3개 신규 국방 R&D 프로그램 제시(4.28) ▲EU 연구 담당 집행위원, 미국 과학자 투자자에게 유럽 투자 유치 제안(4.30)